

國內情報

올肥料輸出 10萬屯을 突破

=輸出高는 \$ 10,446,855=

韓肥가 輸出量의 50%를 차지

肥料史上 最惡의 國際市況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肥料輸出은 業界의 끈질긴 努力으로 드디어 10萬屯을 突破, 올 輸出計劃量인 20萬屯의 目標達成을 위해 앞으로 年末까지 51餘日을 남겨놓고 온 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.

지난 11月4日現在 當協會가 推薦한 肥料輸出 推薦実績은 105,410屯에 達하였다. 이는 今年度 輸出計劃量인 20萬屯에 對比 50%를 若干 上廻하는 것이긴 하나 今年들어 混迷狀態를 繼續하여온 國際市況을 背景으로 할때 輸出展望이 그다지 밝지 못할 것으로 본 當初判斷을 想起한다면 매우 좋은 輸出実績으로 評價되고 있는 바, 肥種別 推薦現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.

尿 素	72,820 ㄲ
硫 安	15,590 ㄲ
複 肥	17,000 ㄲ
合 計	105,410 ㄲ

## 農村肥料實態 1 次 調査班 2 日 出發

2 次 調査班은 9 日 出發 予定

農村肥料實態 調査를 위한 1 次 調査班이 지난 11 月 2 日 江原地域을 비롯 忠南北地域 및 慶南地域으로 各各 出發하였다.

當協會와 各 會員社에서 各各 1 名씩으로 構成된 同 調査班은 미리 準備된 設問書에 따라 1 個道에서 3 個郡을 選定하여 各 郡마다 3 個里에서 各 3 名의 農民을 對象으로 調査케 되는데 2 次 調査가 끝나는대로 綜合 分析케 되며 分析結果는 77 年度 肥料需給計劃 樹立에 많은 參考資料가 될 것으로 期待된다.

한편 京畿地域, 全南北地域, 慶北地域을 包含한 2 次 調査班은 11 月 9 日 出發할 予定이다.